

 **2018** 

제1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종합)

“
우리는 왜 마을로 가는가?
”



일시

2018. 2. 23(금), 14~18시

장소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공간U
-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58 충남개발공사 1층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목 차 CONTENTS

제1회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우리는 왜 마을로 가는가?”

개 요	05
-----	----

추진 목적 및 프로그램 일정표

<1부> 주제 발표

“우리는 왜 마을로 가는가? : 민관협치와 주민자치”	09
-------------------------------	----

구자인 센터장(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내부 쟁점 :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25
-----------------------------------	----

권영진 회장(보령시 마을만들기협의회)

<2부> 쟁점 토론 : 주민자치의 마을만들기 시스템

지정 토론

1. 마을만들기 경험과 제안	33
-----------------	----

조병혜 회장(홍성군 마을만들기협의회)

2. 주민자치의 마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37
--------------------------	----

김애경 회장(서천군 마을만들기협의회)

3. 아름다운 마을로 되어가는 과정	41
---------------------	----

김시환 회장(논산시 마을만들기협의회)

<3부> 기타 토론

‘충남 마을넷’ 밴드 관리 규정 : 2018 지방선거 대응	45
----------------------------------	----

장윤수 연구원(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18년 제5회 충남마을만들기 예산대회 방향	49
---------------------------	----

김영서 사무국장(예산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충남연구원 농어촌마을연구회

2018년 제1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종합)

- “우리는 왜 마을로 가는가?”-

“마을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통하여 관계망이 형성되고 건강하게 확장된다. ... 공론의 장을 통한 공감의 확대 과정 속에서 개개인의 사적 이해관계는 지역사회의 공적 과제로 동의되기도 하고, 지역 차원의 새로운 과제로 합의되기도 한다. 이러한 공적 합의과정이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지켜주는 공공성의 바탕이 된다.”(2015 전국 마을선언 초안, 제17절)

충남도는 2015년부터 기존의 마을만들기 방식을 반성하며 ‘현장밀착형’으로 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집중해왔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군마다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였으며, 2018년 2월 현재, 총 9개 시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2018년부터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실제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현재 추진 방식에서 어떤 점이 바뀌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대화마당 방식으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마을 현장의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영역에서 쟁점 토론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향을 모색하는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충남 센터에서 마을리더를 위한 학습용 잡지로 발간하고 있는 『마을독본』 특집호 주제와 연계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주제별 쟁점토론과 실습도 해보고, 결과물은 뉴스레터와 마을독본 지면을 통해 계속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2월 대화마당은 지금까지 쟁점 토론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018년의 전체 방향성과 운영방식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좋은 학습과 토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일 시 : 2018. 2. 23(금) 14:00 ~ 18:00
- 장 소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공간 U
-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58 충남개발공사 1층
- 주 최 : 충남연구원 농어촌마을연구회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참석대상 : 열정이 있고 공부하려는 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
- 참 가 비 : 무료
- 참가문의 : 정석호 초빙책임연구원(041-429-0007, sockhoj@gmail.com)
- 관련 사이트 : 홈페이지(www.cnmaeul.net), 네이버 밴드(충남마을넷)

○ 세부 프로그램 : 사회 - 정석호 책임연구원

시간	진행내용	비고
~14:00	• 참가자 등록 및 안내	
14:00 ~14:40	• 연구회 취지 및 주제 소개 (구자인 센터장) • 동영상 시청 : 2016~2017년 대화마당의 기록 • 참가자 자기소개 (전원)	
14:40 ~15:20	<1부> 주제발표(각 20분) 1. “우리는 왜 마을로 가는가? : 민관협치와 주민자치” - 구자인 센터장 ※ 제3기 기본계획, 마을독본 등과 연계하여 소개 2.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내부 쟁점 :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 권영진 회장(보령시마을만들기협의회) ※ 마을독본 특집 주제, 올해 연간계획 등과 연계하여 발표	
15:20 ~15:30	·휴식 및 교류	
15:30 ~17:00 (90분)	<2부> 쟁점토론 : “주민자치의 마을만들기 시스템” 1. 지정토론(60분) : 각 10분 _ A4용지 1장 메모 발표 - 시·군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4명) : 권영진 회장(보령시), 조병혜 회장(홍성군), 김애경 회장(서천군), 김시환 회장(논산시) 2. 종합 토론(30분) - 쟁점 관련 자유토론 - 향후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구자인 센터장
17:00 ~17:30 (30분)	<3부> 기타 토론 : 1. ‘충남 마을넷’ 밴드 관리 규정 : 2018 지방선거 대응 2. 2018년 제5회 충남마을만들기 예산대회 방향	장윤수 예산 센터
17:30 ~18:00	·광고 및 정리 : 차기 일정 등 홍보	
18:00 ~19:00	·저녁식사와 교류회	

※ [참고] 월별 운영계획

회차	일시	주요 내용, 주관/협력 기관	비고
1차	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합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쟁 점 : “민관협치와 주민자치의 시스템” 	워크숍
2차	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양군 : 청양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쟁 점 : 마을의 주민 조직 I _ “주민조직 유형 파악과 우수사례 공유” 	
3차	4.19~ 20	(주제, 장소 미정)	3농혁신대학 연계 진행
4차	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군 :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 쟁 점 : 마을의 주민 조직 II _ “마을 주민조직도 쟁점 토론과 실습” 	주민조직도 그려보기 실습과정 11월 충남대회 협의
5차	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성군 : 홍성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쟁 점 : 마을 공동체 재산 관리 I _ “마을공동재산의 역사와 분쟁 및 되찾기 사례” 	충남 각 지역의 사례 발표
6차	7.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시 : 아산시 공동체지원센터 · 쟁 점 : 마을 공동체 재산 관리 II _ “공동재산 관리 쟁점 토론과 실습” 	공동재산 관리대장 만들기 실습과정
7차	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진시 : 당진시청 · 쟁 점 : 마을자치규약 I _ “마을규약 실태와 우수사례 공유” 	장소 협의중
8차	9.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천군 : 서천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쟁 점 : 마을자치규약논산약 II _ “마을자치규약의 쟁점 토론 및 실습” 	주민자격, 입회비, 임원 선거 등
9차	1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안군 : 태안군 농어촌마을지원센터 · 쟁 점 : <i>청년 농업인(귀촌인), 마을 공동소득, 마을복지, 마을가꾸기와 경관, 마을 갈등 관리 중 선택</i> 	주제 선정 협의중
종합	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토론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쟁점 : 시군 지원센터 활동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 개최 장소는 마을 현장을 원칙으로 함

* 향후 상황에 따라 개최 시군 및 시기, 주제(쟁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1부】 주제 발표

“우리는 왜 마을로 가는가? : 민관협치와 주민자치”

— 구자인 센터장(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1차)

마을만들기의 민관협치와 주민자치 시스템

우리는 왜 마을로 가는가?



1

마을만들기의 민관협치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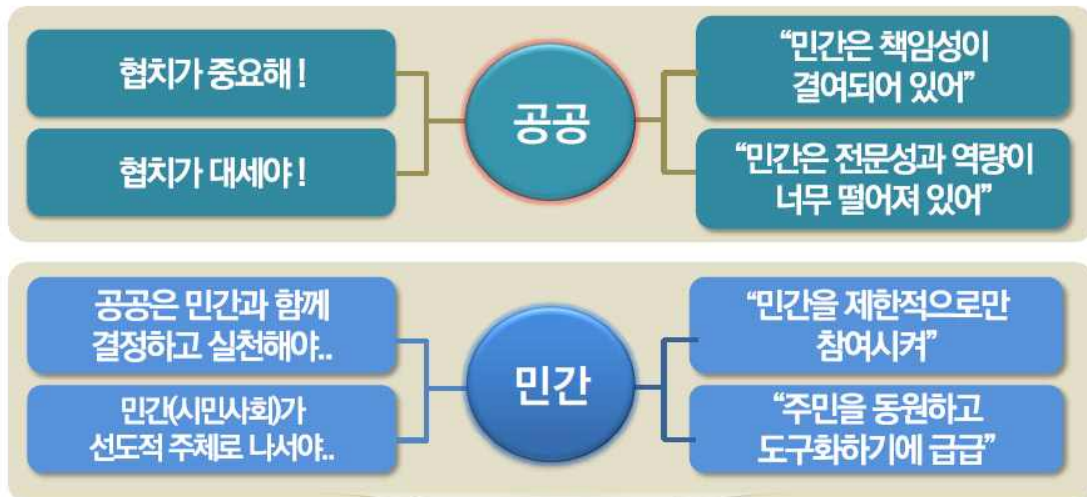
마을 밖에서 마을을 '지원' 하는 시스템 구축

마을만들기의 출발점은 평생학습!!!
= '물고기 잡는 법' 을 배워야 한다.

민관협치 거버넌스 시스템: “행정과 민간의 대등한 협력관계”

왜 민.관.협.치(協治, 거버넌스)인가?

1. 행정의 역할 변화: 규제자→서비스 공급자→지역발전 촉진자
2. 시민사회, 주민의 성장: 적극적인 참여 욕구, 일방적 통치 거부



자료: 정병순, 2017.6.7, “서울시 협치시정의 현재와 미래: 지속가능한 협치서울 2.0 추진전략” (중남민관협치추진단 공동학습회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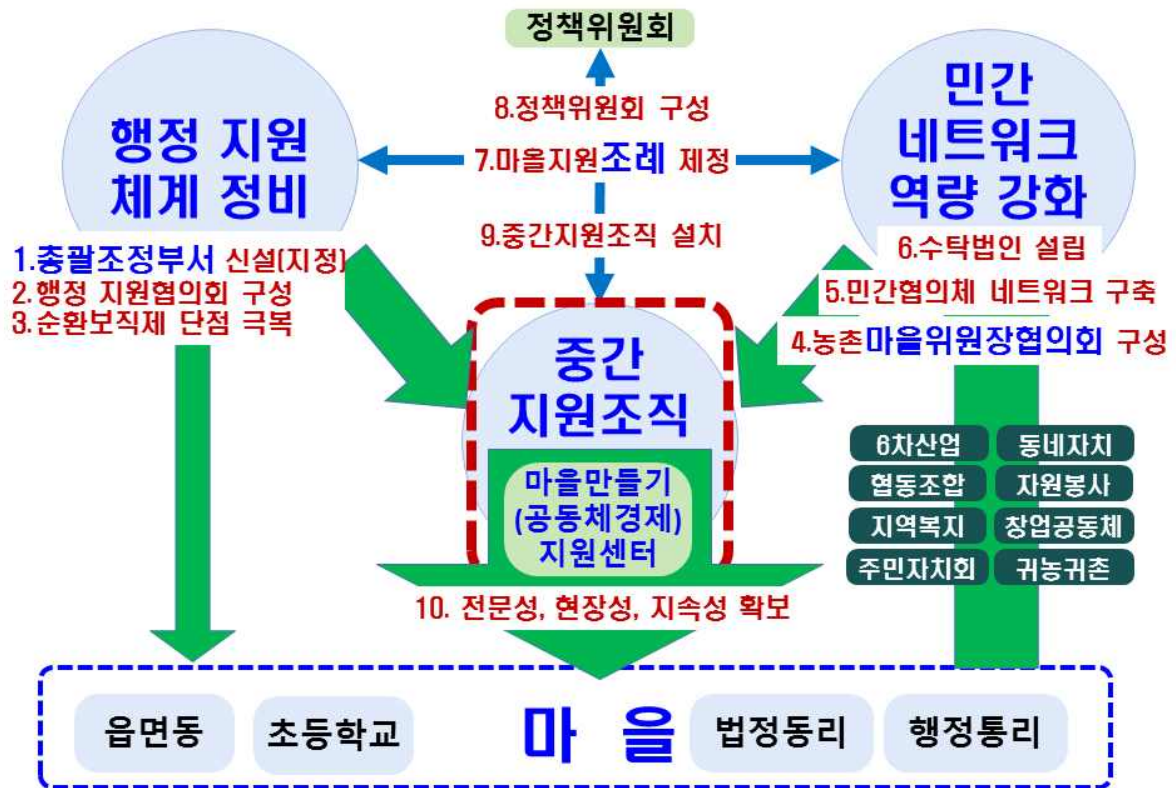
행정과 민간의 ‘대등한 협력관계’ ‘긴장된 협력관계’



사례) 전북 진안군의 시스템_2007년 구축

행정 전담팀 신설과 행정협조회의 개최(2007.3~). 행정이 시스템을 먼저 정비하여 신뢰관계 확보
→ 하지만 행정 인사 이동이 잦고 협력관계는 최소한으로 한정. 대신에 민간 역량은 계속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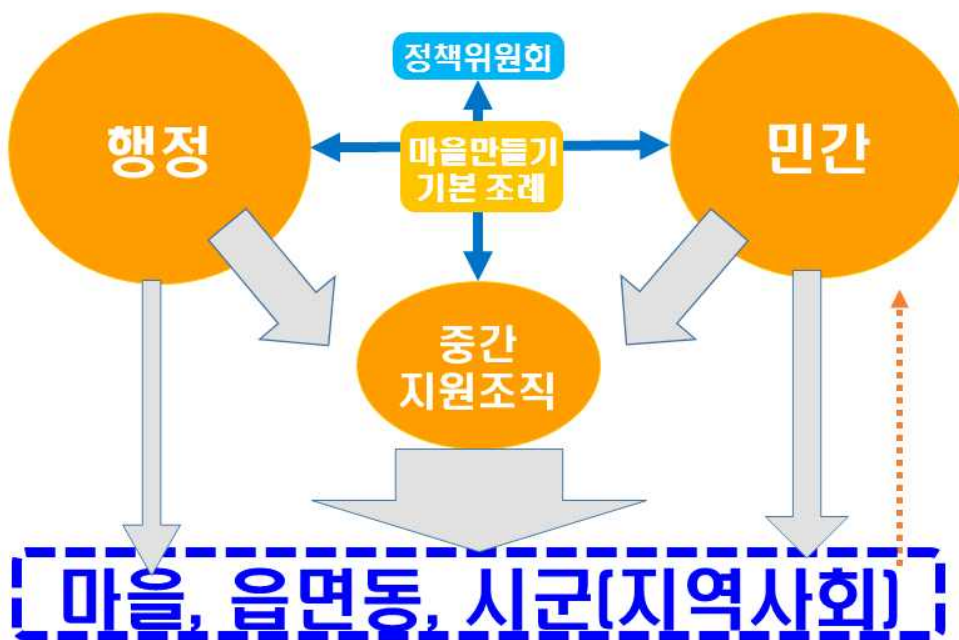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민관협치 시스템)의 10대 핵심과제



민관협치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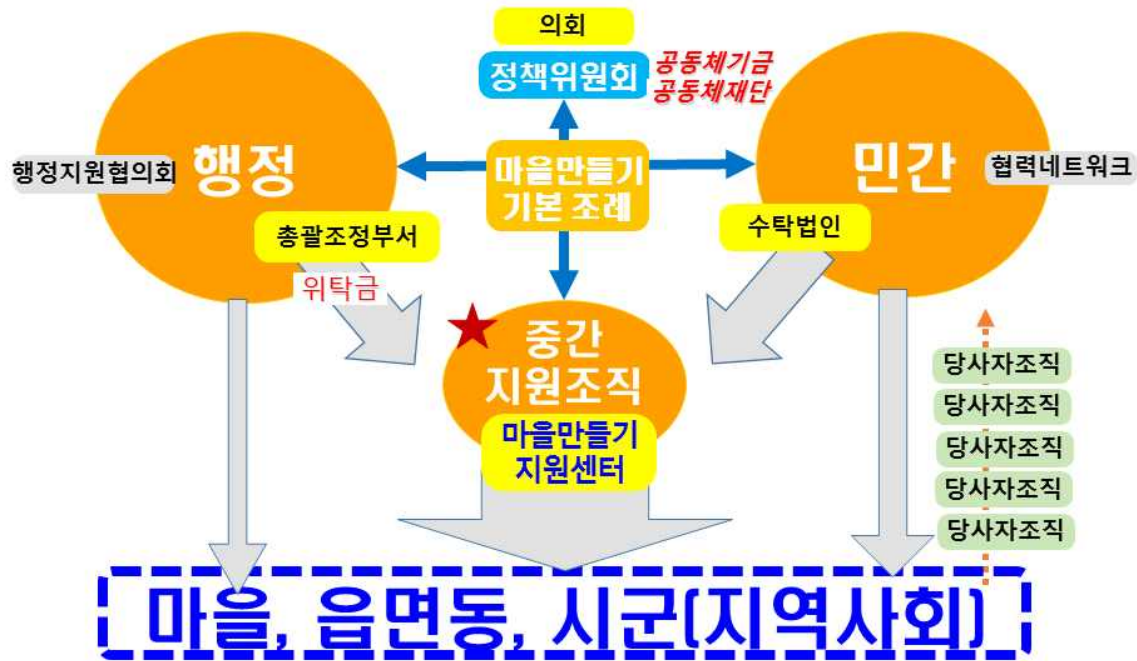
=

1. 조례 = 행정과 민간의 '약속' < 공동 학습과정
2. 정책위원회 = 정책의 공동 결정 < 책임있는 참여
3. 중간지원조직 = 정책의 공동 집행 < 상호책임성



중간지원 조직 =

1. 왜 시급한가? = 한국 지방자치, 농촌 현실 반영
2. 누가 운영할 것인가? = '행정 사무의 민간 위탁'
3.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 성장과정에 대한 배려



마을만들기 민관협치의 '3종 세트' [중장기 과제]: 마을계획(사업), 융합형 조직, 통합형 재정 시군 중심 → 읍면동 단위로 확대

III. 협치서울 2.0: 지속가능한 협치시정 실현전략

34

지역사회 융합형 협치시스템 구축: 계획(사업)/조직/재정 융합에
기초한 지역사회거버넌스 구축

◆ 3차원 융합형 지역사회거버넌스 모델



자료: 정병준, 2017.6.7, "서울시 협치시정의 현재와 미래: 지속가능한 협치서울 2.0 추진전략"
(충남민관협치추진단 공동학습회 자료)

8

마을만들기의 주민자치 시스템

‘마을 스스로 할 일’ 과 ‘외부에서 지원할 일’ 의 구분

열악한 지방자치와 농촌 마을 현실이지만...
 = 지향해야 할 원칙과 전략의 공통분모
 = ‘기본과 기초’의 충실 + 마을간 연대와 협력

9

[관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_ 다양한 영역 :

칸막이 의식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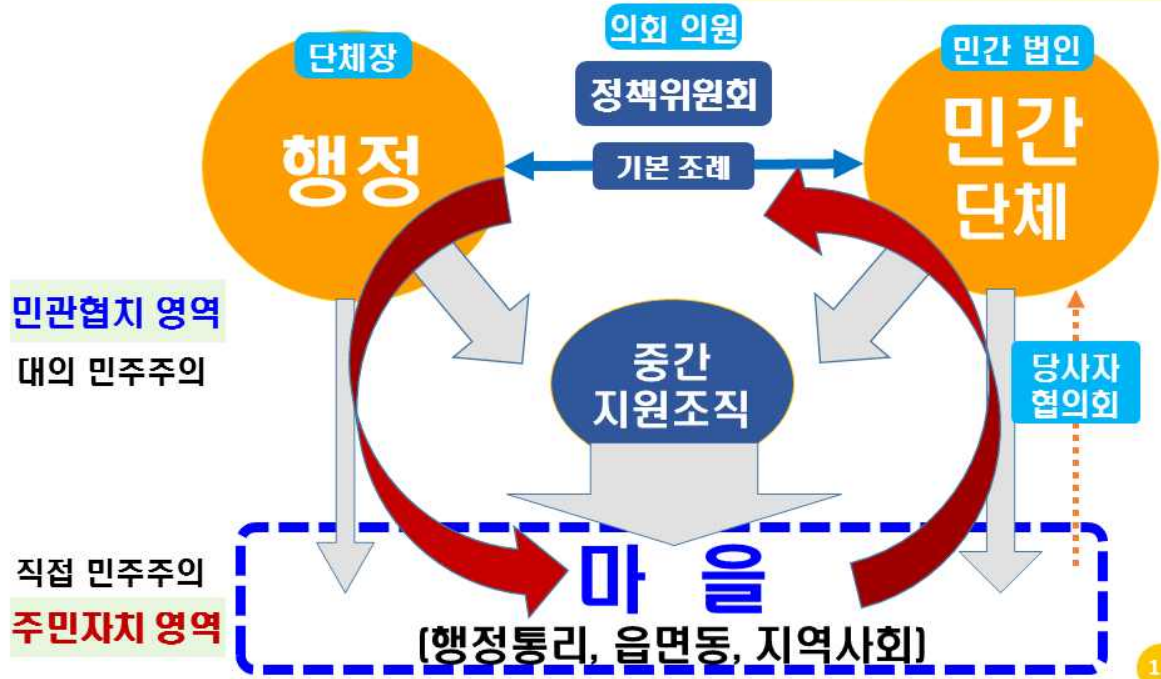
사례) 전북 진안군의
관점_2007년



[기본관점] **마을 역할**은 무엇인가? **행정, 민간단체 역할**은 무엇인가?

누가 마을 주민의 필요를 진정으로 대변할 것인가?

- 한국 지방자치, 농촌 현실에서 출발
- 주민자치와 민관협치의 균형과 조화



마을 스스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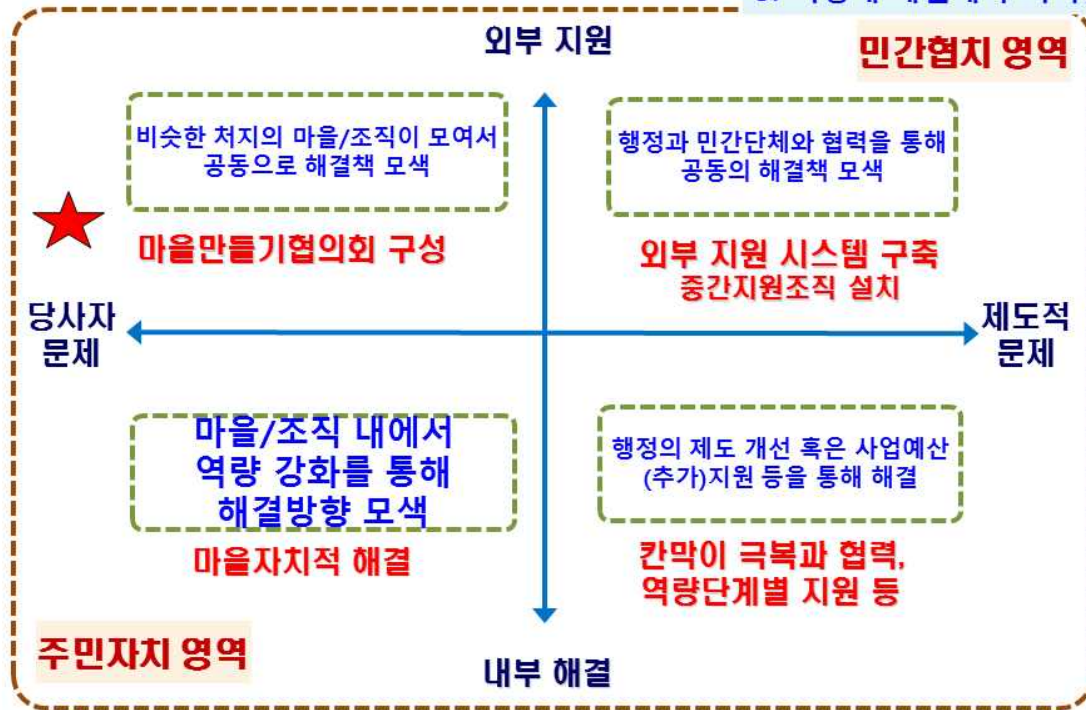
우리 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일 + 마을협의회를 통해 공동 해결할 일
+ 행정과 민간단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분야	마을 내부의 애로사항	해결방향	
		개별 마을/조직	협의회 공동 해결
사람·조직 (인적자원·사회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 인력 부족 낮은 주민인식 갈등(불통) 성과의 무임승차 조직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좌담회(현장포럼) 마을발전계획 수립 힐링프로그램 역량강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규약, 회의록 등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상시 교육, 상담, 컨설팅 시스템 확보
공간·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부지 부족 경관 파괴 법적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계획수립 (부지확보) 행정창구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아가는 교육 실시 인력파견(귀향, 귀농, 귀촌) 제도개선(정책)
돈·사업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성 부족 자금 부족 회계, 마케팅 역량 부족 수익배분 갈등 낮은 인지도(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심화교육 전문인력 파견 상담 특화소득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적정보및지식제공 공동의 판로 개척 체험객 모객 활동

자료 : 논산시 제1회 마을대학 토론 결과 정리(2016.10)

[참고] 마을 활동의 어려움과 해결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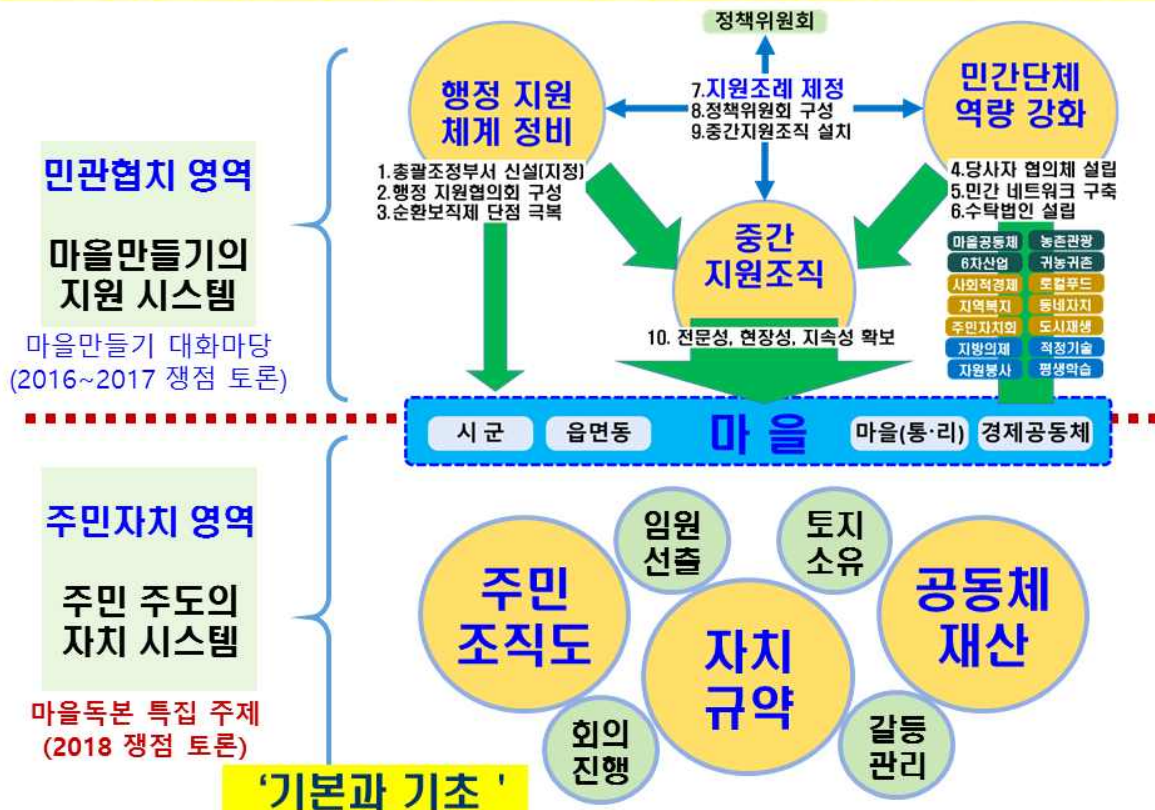
1. 무엇이 어렵고 힘든가?
2. 그 원인은 무엇일까?
3.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나만 힘든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을의 문제는 다른 마을의 문제이기도 하다"

13

‘민관협치 시스템’ 과 ‘주민자치 시스템’ 주요 쟁점



14

3

충남 마을만들기의 제3기(민선7기) 계획

기존 활동 성과를 모아 한단계 도약

농촌 마을의 구조적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
= “행복한 마을공동체, 돌아오는 농촌 “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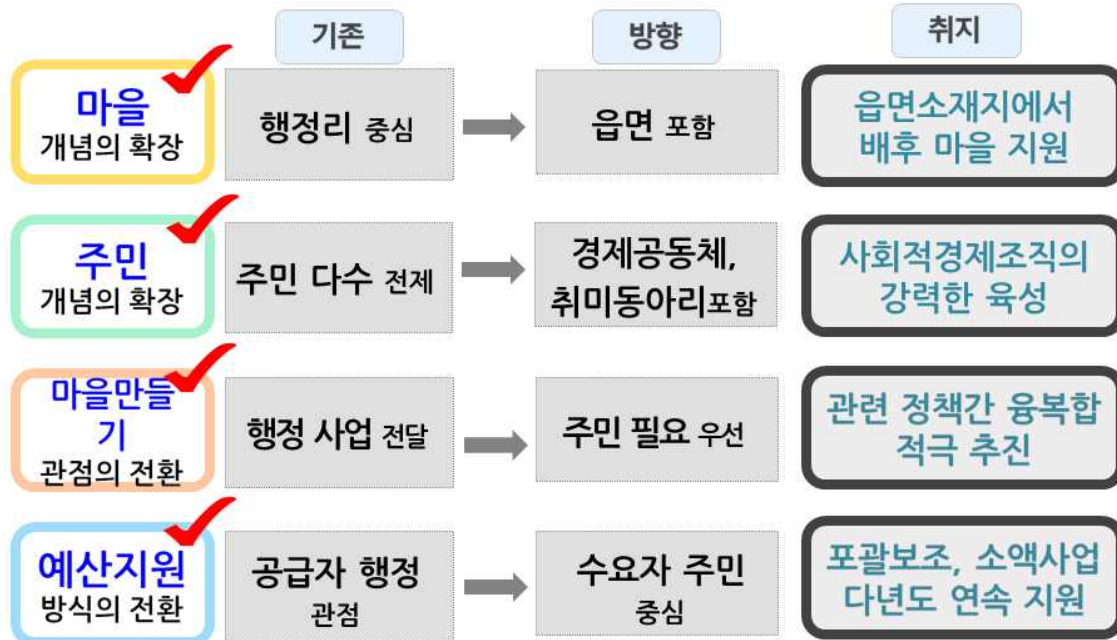
15

1. 제3기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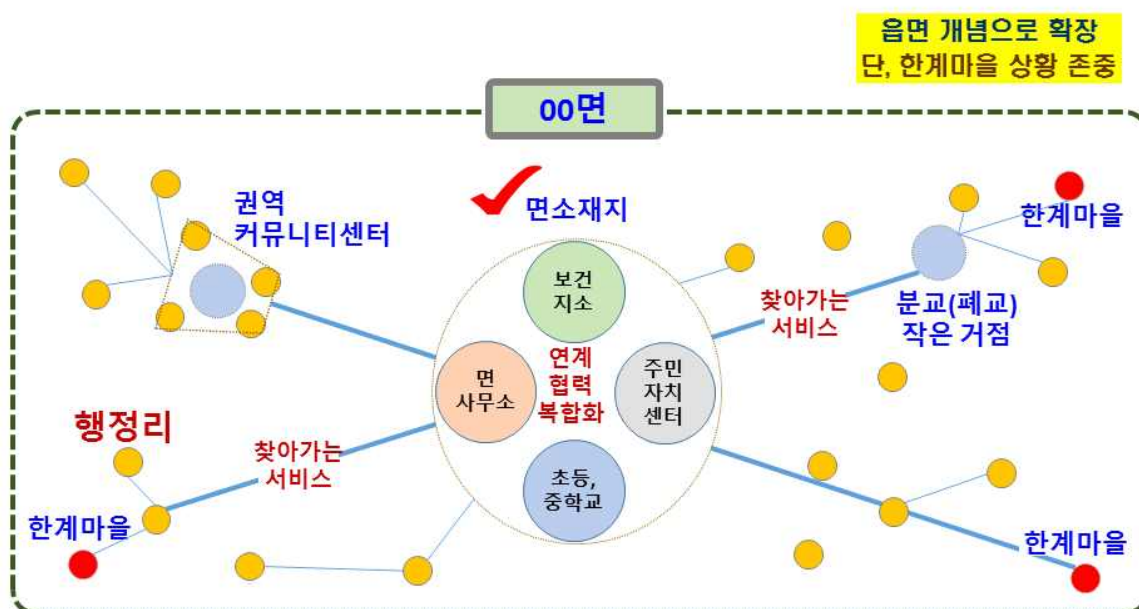


2.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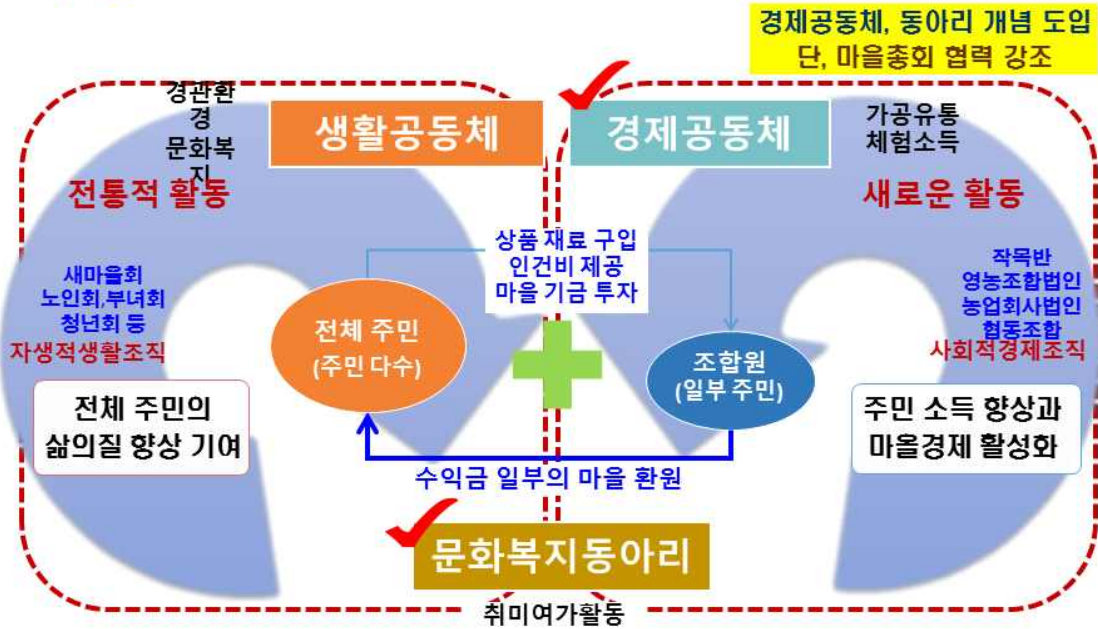
가. 패러다임의 전환, 개념의 확장 방향(종합)



나. **마을** 개념의 확장 : 읍면 공간 규모까지 포괄



다. 주민 개념의 확장 : 경제공동체, 동아리까지 포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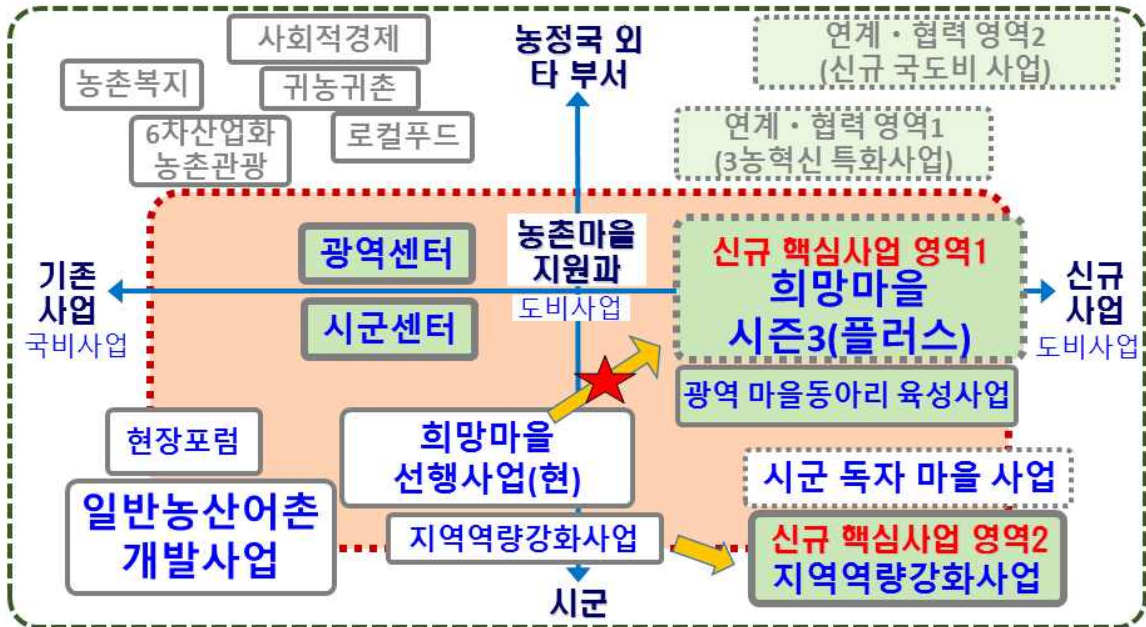
라. 농촌 마을만들기의 유형별 특징 : 임경수 박사의 구분틀

유형	지원사업의 예	추진 주체	농촌미래상 (개념)	비고
① '리'단위 마을진흥사업	· 마을단위사업	'리'단위 통합적 조직 (위원회/조합)		기존 중심 사례
② 다양한 공간범위의 통합적 진흥사업	· 마을 단위 사업 · 권역사업 · 거점면/소도읍개발사업	공간단위 통합적 조직 (위원회/조합)		
③ '리'단위에서의 마을만들기 방식의 적용	· 마을 단위 사업 · 다양한 주민사업 (농업, 복지 등)	'리' 내부의 다양한 주민 조직		
④ 다양한 공간범위, 다양한 사업을 마을만들기 방식으로 추진	· 마을 단위 사업 · 다양한 농업/농촌 지원사업 ·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	다양한 주민조직		신규 강화 추진 방향

주 : 임경수(2017.8.9, 22쪽)를 재구성함

3. 4대 핵심사업과 재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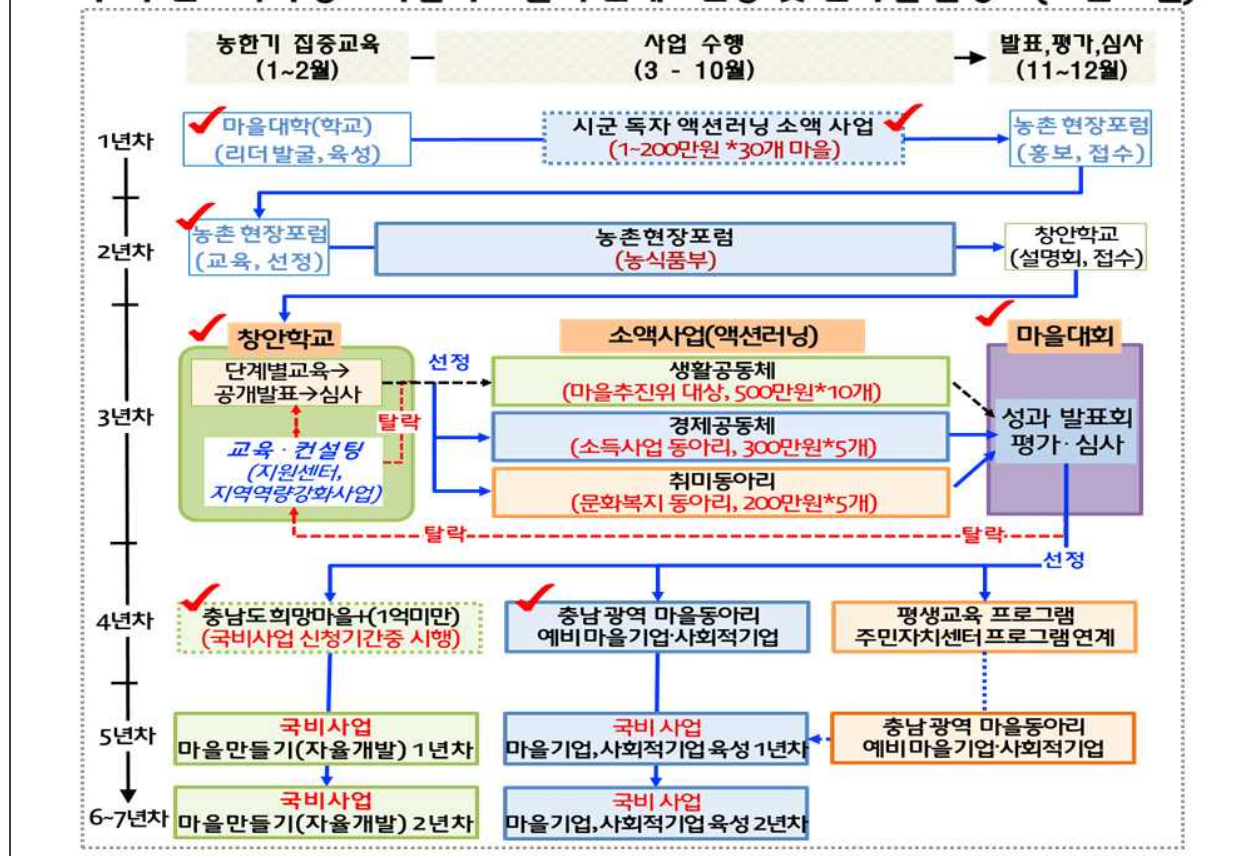
가. 주요 신규 사업 도입을 위한 종합적 재편 전략



나. 4대 핵심사업과 정비 방향 및 재원 배분(안)

	주요 내용	키워드
희망마을 선행사업 총액 21억원	•포괄보조 융복합 사업 도입 : 6~11억원 •1억원 중규모 하드웨어 사업 도입 : 15~10개소 소액사업은 시군 지역역량강화로 전환 + 2019년 일몰사업 예고제	희망마을 시존3(플러스)
광역 마을 동아리 육성 총액 0.5억원 → 1억원	•매년 5~6개 신규 지정, 500~1천만원 차등 지원 •2년간 연속 지원 후에 사회적경제 사업 전환 시군 초기 발굴(1년) → 광역(2년) → 기존 사회적경제 사업(2년)	농촌마을 공동체경제
광역/기초 지원센터 총액 14억원	•기초는 매년 5천만원 도비 지원, 3~4명 인건비 확보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2~3명 인건비 확보 최소 5~7명이 농촌마을정책 담당 + 타 영역 담당 인력 확보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조직
시군지역 역량강화 총액 45억원	•시군별로 최소 3억원 신청 + 총액 2억원 확보 •총액 사업비의 20~25% 인건비(활동비) 배분 충남의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가장 잘 활용할 기회	기초 훈련 강화 시군 주도 전환

다. 주민교육과 공모사업의 효율적 연계 : 연중 및 연차별 일정표(표준모델)



4

2018년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운영방향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진전

농촌 마을 '지원 시스템 구축' 의 일정한 성과
 → 마을 내부의 실용적인 주제로 전환

[표 1] 2017년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_ 주요 활동 실적

회차	월/일	주요 내용 및 장소	참석 인원	비고
1회	2.24	·종합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충남 사회적경제-마을만들기 합동 워크숍	51	워크숍
2회	3.31	·홍성군 : 홍성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쟁점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46	홍성군 지원센터 개소식 참가 병행
3회	4.21	·금산군 : 금산군청+지역활성화센터 ·쟁점 : 농촌 마을과 중심지활성화 연계	(행사 대체)	4.20~21 3농대학 연계 진행
4회	5.26	·천안시 : 천안시공동체지원센터 ·쟁점 : 도시형 마을과 농촌형 마을의 협력방향	37	
5회	6.30	·보령시 : 보령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쟁점 : 마을만들기 협업과 지역네트워크	34	11월 충남대회 협의 포함
6회	7.28	·서천군 : 서천군농촌마을지원센터 ·쟁점 : 농촌 마을만들기협의회 구성과 운영	46	
7회	8.25	·예산군 :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쟁점 : 농촌 마을과 귀농귀촌	34	
8회	9.22	·아산시 : 아산시공동체지원센터 ·쟁점 : 중간지원조직의 행정 직영과 민간위탁	44	
9회	10.27	·공주시 : 충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쟁점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협의회 와 중간지원조직	30	
종합	12.19	·종합토론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쟁점 : 우수도서 활용 도서대회와 연계	46	독서대회 시상식 저자초청 강연회

25

[표 2]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참석인원 현황

회차	총 인원수	마을리더	시군 지원센터	공무원	충남연구원	기타
1	51	16	7	13	6	9
2	46	6	19	13	5	3
3	(3농대학)	-	-	-	-	-
4	37	-	15	7	5	10
5	34	6	14	4	4	6
6	46	18	15	6	5	2
7	34	7	9	9	6	3
8	44	16	12	6	6	4
9	30	11	4	4	3	8
10	46	14	14	6	7	5
총계	368	94	109	68	47	50
	평균 37명/회	(25.5%)	(29.6%)	(18.4%)	(12.2%)	(13.5%)

26

2018년 대화마당 운영 방향 _ “마을 내부 주민자치 시스템 구축”

1) 칸막이 극복, 주민 중심 : **차이의 존중 + 공통의 언어**

2) 현장 중심, 시군 마을 순회 : **다양성의 반영 + 근본원인 진단**

3) 민관 거버넌스 훈련 : **공동학습과 토론 + 과정의 중시**

4) 정기적 운영, 성실 참여 :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가는 길’**

1)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 ~ 8시 (저녁 교류회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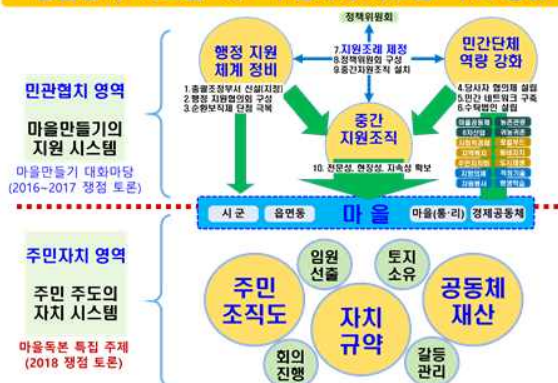
2) 시군 마을 순회 8회 개최 (중간지원조직 추진 시군 우선)

3) 사무국 운영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담당)

4) 충남연구원 지원센터+연구회 예산 (+ 일부 자부담)

5) 실용적 주제 선택과 실습 : 마을독본 잡지 특집호 주제 연계

‘민관협치 시스템’ 과 ‘주민자치 시스템’ 주요 쟁점



2018

제1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종합)

“우리는 왜 마을로 가는가?”

일시 2018. 2. 23(금) 14:00 ~ 18:00(저녁식사 포함)

장소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공간 U
- 충청권 총학생 연합전로58 충남개발공사 1층

대상 누구나 참석 가능

문의 정석호 책임연구원 (070-4349-7109, sockhoj@gmail.com)

주제 “우리는 왜 마을로 가는가?”

2차	3.30	청양	마을의 주민 조직 I _ “주민조직 유형과 우수사례 공유”
4차	5.25	예산	마을의 주민 조직 II _ “주민조직도 쟁점 토론과 실습”
5차	6.29	홍성	마을 공동체재산 I _ “마을 공동재산의 역사와 분쟁 및 되찾기 사례”
6차	7.27	아산	마을 공동체재산 II _ “공동재산 관리 쟁점 토론과 실습”
7차	8.31	당진	마을 자치규약 I _ “마을자치규약 실태와 우수사례”
8차	9.21	서천	마을 자치규약 II _ “마을자치규약 쟁점 토론 및 실습”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제1회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종합)

【1부】 사례 발표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내부 쟁점
: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 권영진 회장(보령시 마을만들기협의회)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내부 쟁점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나의마을 만들기 이력



2007년 보령시 청라면 음현리 은고개마을에 귀촌

2012년 보령시 살기좋은 마을학교 수료

2012년 보령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발표대회 1위 수상

2012년 보령시 청라면 은고개마을 추진위원장

2013년 충남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발표대회 2위 수상

2014년 보령시 희망 마을만들기 협의회발족과 초대회장

2015년 농림부 일반농산어촌개발(소득.체험부문) 5억원 공모사업 선정

2015년 보령시 깨끗한 마을만들기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

2016년 행정자치부 주관 글로벌 공동체 마을자랑 대회 장려상 수상

2016년 NGO 보령시 마을만들기협의회설립 충남도지사인가와 공식 초대회장

2016년 보령시 (민간 중간지원조직설립) 사단법인 만세보령 네트워크 이사

2017년 보령시 (중간지원조직)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장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제4회행복마을 콘테스트 충남도 1위,전국3위 동상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마을주민 참여가 바뀌어야 한다



마을사업 규모 바뀌어야 한다



마을리더 바뀌어야 한다



마을규약 바뀌어야 한다



마을만들기 바뀌어야 한다

1. 마을주민참여 바뀌어야한다



마을만들기

●억지춘향

리더, 귀촌인
원주민.

●혈뜯음.시기

교육

●정신적어른

2.마을사업지원 바뀌어야한다



다수마을

●소액사업확장

사업비

●1억원규모이하

선정방법

●민간지원조직추천

3.마을리더 바뀌어야한다



교육

●혁신.배려.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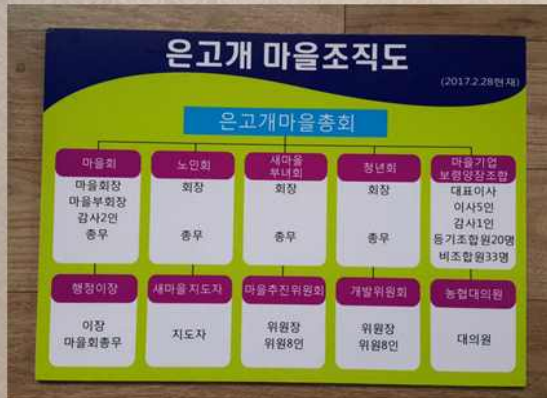
바톤

●양보.실천

구상

●장기 마을발전계획

4.마을규약 바뀌어야한다



목적에명시

- 마을만들기정신

임원자격

- 회장. 이장.
- 추진위원장

사업과 사업비

- 장기 마을발전계획
- 마을발전비 지출명시

5.마을만들기 바뀌어야한다



사업지원

- 준비된마을

사업규모

- 소규모확대

사업방법

- 감동사업장려
- 인구증가 대책노력

마을 만들기 내부쟁점은 계속 됩니다!



【2부】 쟁점토론 : 주민자치의 마을만들기 시스템**| 지정 토론① |****마을만들기 경험과 제안**

— 조병혜 회장(홍성군 희망마을협의회)

마을만들기 경험과 제안

홍성군 희망마을협의회장 조 병 혜

저는 2011년부터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 신곡마을 이장을 맡아 마을 일을 맡고 있는 8년차 이장입니다.

처음 이장 일을 보면서는 행정에서 내려 주는 사업만 했습니다. 농로정비, 마을 안길 포장 등 사업을 기다려야 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마을보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기다리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면사무소도 다른 마을 이장이 한 번 갈 때 두 번 가고, 면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마을에 대한 요구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소문이 났는지, 2014년 초에 군청 직원이 찾아와 희망마을이란 사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을을 위해 교육도 하고 잘 사는 마을에 구경도 간다는 설명을 듣고 보니 마을을 위해 해볼 만한 사업인 것 같았습니다. 주민회의를 열어 의논한 결과 주민들 호응이 좋아 희망마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교육도 받고 마을 자원도 찾아보고 잘 산다는 마을로 견학도 가고 일 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 사례 발표를 통해 우수상을 받아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를 받자마자 바로 써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희망마을 사업을 통해 세운 마을발전계획에 따라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사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에 희망마을 선행사업에 선정되었고 연말 사례발표 우수상 상금을 합쳐 5천만원을 마련하여 소규모 두부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농한기인 겨울철에 두부를 만들어 주변 마을과 지인들에게 판매한 결과 호응이 좋고 작게나마 돈도 모이니 주민들도 좋아하여 앞으로도 계속하려고 합니다.

홍성군 희망마을협의회장으로는 2017년부터 일을 맡았습니다. 2017년의 홍성군 희망마을협의회는 70여개의 마을이 회원으로 있었으나 참석률도 저조하고 관심이나 의지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협의회 정비를 위해 회원마을에 일일이 연락하여 참여 의지를 확인하고 정기총회를 통해 35개 마을을 정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작년에 현장포럼을 마친 5개 마을을 신규 회원마을로 받아 현재 40개 마을이 회원으로 있으며 농번기를 제외하고 매달 모임을 갖으면서 학습과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희망마을협의회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여러모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망마을협의회 위상을 높이하고자 홍성군과 협의해 희망마을 선행사업 심사 시 희망마을협의회장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고 작년부터 심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신곡마을 이장 저 혼자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희망마을 초기에는 군청 공무원의 적극적인 권유, 지금은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상시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신곡마을처럼 의지가 있는 마을들에 대해 행정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항상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 희망마을협의회는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초기의 홍성군처럼 희망마을협의회가 잘 운영되지 않는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만들기를 경험한 희망마을협의회 기반이 탄탄해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도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마을 선행사업 심사를 하다 보니 마을에서 신청하는 계획 내용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마을에서 바라는 내용을 잘 정리하고 방향도 잘 잡아주어 각 마을마다 맞춤형 사업계획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에서도 지원폭은 넓히고 문턱은 낮춘 사업을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즘 홍성군 희망마을협의회는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만들어서 마을만들기 관련 정보도 얻고 마을 소식도 서로 교환하면서 재미있게 마을만들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성군을 비롯한 충남의 마을만들기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2부】 쟁점토론 : 주민자치의 마을만들기 시스템**| 지정 토론② |****주민자치의 마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김애경 회장(서천군 마을만들기협의회)

주민자치의 마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서천군 마을만들기협의회장 김 애 경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의 지정토론 참가 및 원고를 써 달라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아무리 생각에 생각을 해봐도 할 말이 없다.

각 지역마다 학교가 있어야하고 구멍가게와 작은 시장에서 내가 필요한 물건과 제철 식재료를 우리지역에서 쉽게 사고 팔수 있는 순환이 가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상적인 생각이 아닌 마을을 살펴보면, 마을 조직은 잘 갖춰져 있으나 일 할 사람이 없어 일부 사람들이 겸직을 하면서 장기 봉사를 하고 있는 상태로 피로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젊은 주민이 있어도 직장생활에 바쁘고, 어르신들은 요양원, 병원 등에 계셔 마을에 일할 사람이 없다.

우리 마을도 사업을 추진 할 때 48가구에 70여명이 계셨는데 현재는 28가구에 48명이 살고 계시고 그나마 6가구도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로 살고 있지 않은 사실상 빈집이다

마을 사업이 잘 안되 고민하던 어느 날 지금은 대학생이 된 딸이 초등학교 때 했던 말이 생각났다. 딸은 동네 근처 한 학년 학생수가 12명 정도인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에 있는 학생 수가 한 학년에 12명 정도 있는 초등학교에 보냈는데 마음이 안 맞는 친구 때문에 마음에 안 맞는 학생이 있는데 학년이 바뀌어도 똑같은 친구와의 문제가 계속 생겨 스트레스를 받아 원형탈모 증세가 생겨 병원을 다니기도 했다. 너무 심해져 읍내의 학교로 전학을 간 한달 후에 한말이 “엄마 이제 학교 다니는 것 같아요”였다. 전 학교에서는 학급회의를 해도 00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 재미가 없었는데 이 학교는 반 친구들이 많아 회의도 회의답게 하고 의견도 존중해주고 친구들도 다양하게 놀 수 있어서 학교 다니는 게 좋다는 의미이다. 이 말을 다시 곱씹어 보니 결국은 기본적인 사람이 있어야 마을사업도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농촌이 초고령화 되면서 한집건너 한집이 빈집이고 경작지는 풀밭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마을만들기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마을은 마을의 유희지와 남는 농산물을 활용한 농가 맛 집과 소규모 가공을 하려했을 때 지역의 젊은이들을 고용하려해도 보험, 인건비, 전문성 등 문제가 있었고, 지역 주민에게 농산물 구입 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었다. 농가 맛 집이나 가공 식품은 모두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주민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앞으로는 남는 것 같으나 뒤로는 적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농촌에 현실이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는 장류나 두부 가공으로 물리게 되는데 된장, 간장 소비는 엄청 줄고 있으며, 고추장과 두부는 대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어 소비자 찾기가 하늘에 별 따기가 돼버렸다.

그럼 정말 농촌에 희망이 없는 걸까? 아니다. 사고의 전환... 생각을 바꾸면 답이 있다.

몇 년 전의 경험을 말하면서 글을 마치고 싶다. 가을에 김장하려고 배추와 무를 잔뜩 심었는데 김장하고도 남았으나 밭을 갈아 줄 사람이 없어 방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봄이 되자 배추와 무에서 노란 꽃이 피면서 마치 제주도 유채밭 처럼 되었다. 이 무렵에 차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쁘다고 들어와 사진 찍고, 농가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카페에 들러 커피도 마시고, 전시관 둘러보고, 마을 농산물도 사가는게 아닌가? 또 그 배추꽃으로 야채 샐러드와 물김치에도 넣으니 예쁘고 보기 좋은 반찬이 만들어지고 방문객들도 더 특별하게 생각하고 좋아했다.

이처럼 마을만들기는 순환되는 먹거리를 만들어야한다. 먹지 못하는 꽃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년생을 키워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주민과 함께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한다.

【2부】 쟁점토론 : 주민자치의 마을만들기 시스템**| 지정 토론③ |****아름다운 마을로 되어가는 과정**

— 김시환 회장(논산시 마을만들기협의회)

아름다운 마을로 되어가는 과정

논산시 마을만들기협의회장 김 시 환

우리 마을은 노인회는 잘 구성되어 운영되어지고 있었지만 다른 단체는 미약했다. 그런 미약한 단체들이 서로 힘이 되어주는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다.

바로 마을공동체 복원이 필요했다. 예전에는 ‘동네 잔치’라는 말이 있었다. 한 가정의 일을 마을이 함께 하곤 했다. 그만큼 서로 협동하고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은 함께 했다.

그러나 농촌 마을까지도 도시형 생활기반이 마련되면서 공동체 의식이 살아졌다. 그래서 마을부녀회와 청년회의 활성화가 절실했다.

마을부녀회와 청년회가 주축이 되어 마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했고 그런 생각을 실천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있었다. 그 자치회 구성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이루려 했다.

그러므로 마을 이장역할은 중요하다. 이장이 변해야 마을이 살 수 있다. 주변의 변화를 빨리 파악하고 마을주민들과 소통의 통로를 만들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웃공동체(이웃마을)와의 소통 또한 필요하다. 인구감소와 젊은층의 부재로 마을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는 지속가능하기 위해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되어진다.

첫째 마을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소소한 일거리가 있어야 한다.

둘째 작지만 소득과 연결이 되어야한다.

셋째 마을의 노령화로 인적자원이 부족한 실정을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고민들이 해결된다면 지속가능한 아름다운 마을로 거듭날 것이다.

【3부】 기타 토론

**‘충남 마을넷’ 밴드 관리 규정
: 2018 지방선거 대응**

— 장윤수 연구원(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충남 마을넷’ 밴드 운영규칙(안)

제1장 밴드의 운영 목적

‘충남 마을넷’ 밴드는 충남도내에 거주하거나 연고지를 둔 마을만들기 리더와 활동가, 주민, 관계자 등이 각종 행사나 공모사업, 사는 이야기 등 유익한 정보와 의견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2015년 8월에 개설하였습니다. 농촌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다양하고 훈훈한 소식을 올리고, 상호간에 정겨운 대화를 나누면서 유용한 정보의 교류와 소통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충남의 4,300개 마을이 골고루 발전하고 마을 주민 모두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제2장 가입 및 운영 방법

제1조(가입조건) ‘충남 마을넷’은 성별, 나이, 지역 제한이 없는 공개 밴드입니다.

제2조(정보공개) 1. 밴드 가입 시에는 이름/지역/소속(단체 또는 마을)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홍성/홍북마을)

2.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함께 활동하는 밴드이기 때문에 실명과 지역, 소속이 설정돼 있지 않으신 분들께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정치인 선전 글을 게재하는 등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글을 게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명과 지역, 소속을 밝히지 않으신 분들의 글은 밴드 관리자가 내용을 판단하여 통보 없이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제3조(운영 주체) 밴드 관리는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사무국 역할을 담당합니다.

제4조(운영 매너) 1. 밴드 알림이 일상의 리듬을 해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글쓰기를 자제해 주세요.(긴급알림 제외)

2. 밴드조작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밴드 설정에서 ‘매너모드’로 설정하거나 알림소리가 거슬리는 경우 밴드 ‘설정’에서 ‘소리알림’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3. 중요한 내용의 공지사항이 게재될 경우에는 최소 1시간의 여유를 두고 다음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제3장 실천사항

제5조. 충남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1. 본 밴드 활동을 통해 충남 마을만들기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이나 행사, 사업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2. 개인적인 목적으로 본 밴드가 악용되지 않아야 하고, 마을만들기와의 관련성이 있음을 스스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개인 사업 홍보는 운영진과 사전 협의 또는 상의 후에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즐겁고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마을만들기 활동을 서로 격려하거나 문제제기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글이 많이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농촌 마을살이의 희로애락을 담은 글들은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3. 농촌 마을 생활을 하면서 의미가 있는 좋은 글, 재미있는 글을 공유함으로써 생활에 웃음과 활력을 줄 수 있는 글도 적극 환영합니다.

제7조.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밴드를 만들어 갑시다.

1. 오지 마을에 있어도 세상과의 소통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밴드가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갑시다.
3. 본 밴드에는 충남이 아닌 타 지역의 회원들도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 갑시다.

제4장 금지사항

제8조. 1. 선정적인 내용이나 타인을 비방하는 글은 절대 게시할 수 없습니다.

2. 발견 시 통보 없이 즉시 게시물을 삭제하며, 작성자는 강제로 탈퇴됩니다.

제9조. 1. 개인 사업이나 농산물 홍보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2. 특히, 타 밴드에 올린 글을 ‘퍼나르는(공유하기)’ 방식은 무조건 삭제합니다.
3. 단, 농촌 마을살이나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내용을 담아 홍보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4. 3회 이상 규정을 어길 시에는 강제로 탈퇴됩니다.

제10조. 1. 특정 정당이나 선거후보자를 지지하는 정치적 게시물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2. 특히, 타 밴드에 올린 글을 ‘퍼나르는(공유하기)’ 방식은 무조건 삭제합니다.
3. 마을만들기 관련 밴드를 제외한 타 밴드로의 초대 게시물도 금지합니다.
4. 본인이 정치인이 아니어도 선거 후보자나 출마예정자의 동정이나 행사를 지속 홍보하는 경우도 삭제 및 강제탈퇴 대상임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단, 마을만들기와 직접 관련된 공약 소개나 정책 토론 제안, 행사 소개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6. 닉네임에 정치인의 이름이나 정치적 내용을 담을 수 없으며, 수정하지 않을 경우 강제 탈퇴될 수 있습니다.
7. 3회 이상 규정을 어길 시에는 강제로 탈퇴됩니다.

제11조. 1. 특정 종교나 단체를 홍보하거나 지지하는 글은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2. 단, 마을만들기 관련 단체의 글은 적극 장려합니다.

제12조. 충남 이외 지역 행사로 마을만들기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홍보 글은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부칙

1. 본 운영규칙은 2018년 2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운영규칙의 수정은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이나 충남대회 등 공개적인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사전에 밴드에 공지합니다.

【3부】 기타 토론**2018년 제5회 충남마을만들기 예산대회 방향**

– 김영서 사무국장(예산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제5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준비계획(안)

2018. 02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 마을만들기 소통과 연대를 위한 -

제 5 회 충 남 마 을 대 회 개 최

◆ 제5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의 성공적개최를 위하여 예산군, (사) 예산군행복마을네트워크,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가 마을대회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함

1 목적

○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에서 1~4차 충남 마을대회 자료를 수집하고 예산군과 협의하여 마을대회운영을 위한 조직을 구성.

2 조직구성

○ 준비위원회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와 예산군, 충남도 관계자가 마을대회 운영을 위한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준비위원회를 개최.

- 참여기관 : 센터, 예산군, 충남도
- 준비운영회 운영 : 2~3회

○ 조직위원회 구성

- 예산군의 민감위원, 행정 담당, 행사주관단체 대표 등
- 조직위원장 : 예산군수 & 민간 추천 1인
- 조직위원 : (사)예산군행복마을네트워크, 예산군,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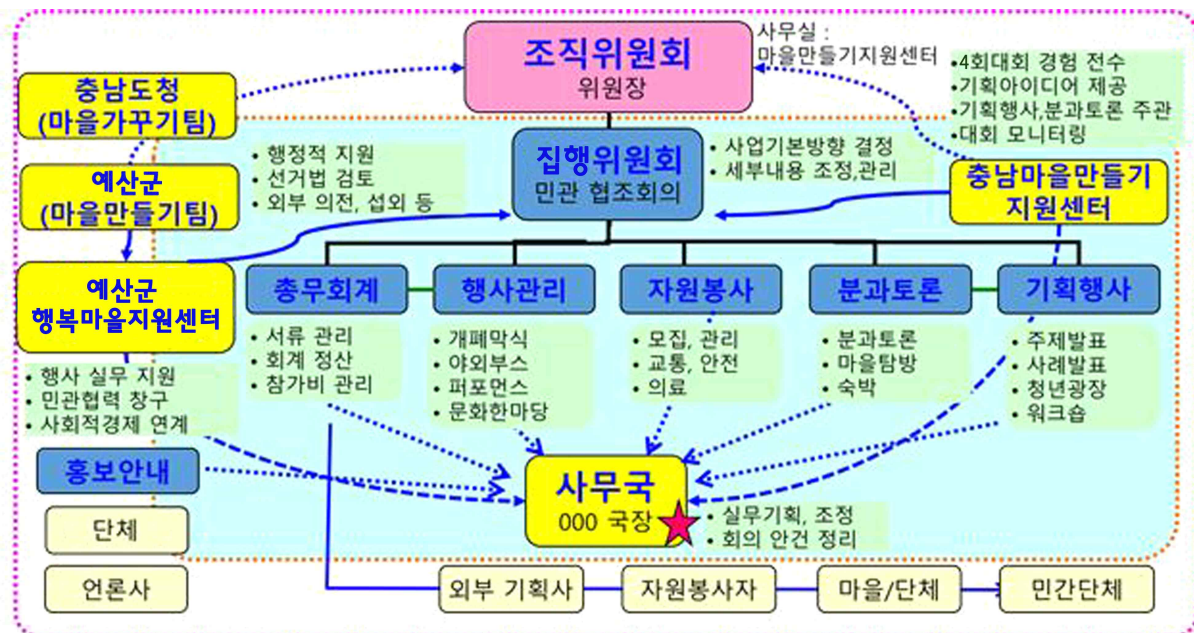
○ 집행위원회 : 10인 이내의 실무자로 구성

- 집행위원장 : 집행회의에서 선출
- 역할 : 사업기본방향 설정, 사업 세부내용 조정, 행정지원, 섭외

○ 사무국

- 사무국장(상근), 활동가(반상근) 2인, 자원봉사자등 으로 구성
(집행위원회에서 협의)
- 운영기간 : 3개월(한시적 운영)
- * 예산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 행사실무지원, 민관협력창구, 민과 관의
가교역할 수행.

3 조직위 구성과 역할



4 기타사항

○ 조직위원회 사무실

- 군 협의

○ 마을대회 형식과 내용

- 분과토론 실행 여부 등 마을대회의 기본 방향을 집행위원회서 논의

메 모 장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메 모 장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